

**마 요한복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성경말씀: 요1:35-51**

요한복음 강해 오늘 여섯 번째 강해, 1장이 가장 중요하다. AD 90년경에 성경을 총정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29),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을 끝내고 그 다음 날도 요한은 같은 것 증언(36), 아마도 그의 사역 내내 이것 선포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명이 끝나는 시점, **요3:30**이 이루어지는 시점, 나는 물 침례, 이스라엘에게 그분 증언, 그런데 이제 성령 침례를 주는 분이 오셨다(33). 공생애 사역 시작,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41)라고 함, 이스라엘의 왕(49), 나는 사람의 아들(51)

이런 모든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요한복음 이해에 큰 도움, < >

**처음 두 제자(35-42)**

1. 눅3장의 요한의 회개의 침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됨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증언(35), 두 제자는 누구인가?
  1. 한 사람은 안드레(40), 2. 다른 사람 이름 없음,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요한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됨, 침례자 요한의 증언 실천(36)  
그 두 사람이 그분을 따름, 아마도 아침 10시경, 예수님(38), 어디에 거하시나?, 찾아가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랍비여, 선생님, 율법에 능통한 사람, 지도자, 주님의 말씀(39), 저녁때에 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
2.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안드레의 변화(40-42)  
자기 형제를 찾아내서 그분을 소개함(40), 그분은 메시아이다(41)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침례자 요한의 외침, 메시아가 온다. 바로 그분(사9:6-7)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 안내함, 주님의 말씀: 너는 게바라 불리리라. 이름을 바꾸는 일은 사역을 부여하는 것,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 굳건한 반석으로 변함  
안드레의 설교 없다. 그런데 안드레는 꼭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온다: 1장 자기 형제 베드로,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 그것을 가진 소년, 12장의 그리스 사람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야보고의 형제, 자기 형제를 데려옴, 총4명이 됨  
우리는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된다. 우리 교회나 내가 아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미디어 선교 사역, 어디서든 듣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다음 두 제자(43-51)**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남, 나를 따르라(43), 빌립: 벧새다 출신(44)  
빌립이 곧바로 한 일,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 소개(45),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분 나다나엘의 반응(46), 빌립 와서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47), 그에 대한 칭찬(47), 간사함이 없다. 속임수, 위선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야곱은 압락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간사함의 대가(아버지, 형, 삼촌, 아내들을 속임), 그러나 창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간사함을 모두 버리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됨, 이것 기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32:28), 전체 맥락이 야곱 이야기 나다나엘의 반응(48), 주님의 말씀(48), 이 말씀은 참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분명한 것은 구약 성도인 나다나엘이 이 답답한 시절에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그 당시 신실한 구약 성도들 메시아 고대(눅2:25, 37-38, 24:18-21)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침례자 요한의 침례 받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 놀라웠다. 그의 반응(49), 엄청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성: 간사함이 없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단순하다.  
사도 바울의 표현: 깨끗한 양심, 투명한 양심, 순수한 양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성: 야곱처럼 살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사함을 버리고 투명한 양심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요1:12-13).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마18:3). 회심하여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바로 이때에 이 사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큰 약속을 주신다(50).

그 약속은 51절, 그런데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자들: 너에서 너희로 바뀐다(51)  
51절 말씀 낭독, 자 이것은 명백하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돌 베게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 위에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47), 그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나다나엘, 나라가 없이 곤고하게 살고 있다. 종교인들의 무관심, 소수의 메시아 대망자들, 소망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야곱의 사건을 언급하며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창세기 28장: 약 2000년 전 사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 탈취,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죽게 되지 어머니가  
자기 고향 밧단아람으로 보냄, 머리를 썼지만 남은 게 없음, 인생이 가장 곤고한 때, 사냥꾼 에서와  
달리 그는 집에서 살던 사람, 도망하며 들에서 이슬 맞아가며 자는 것 어려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저녁에 지쳐서 들에서 돌 베게를 하고 잠을 잠(10-11)

얼마나 지쳤으면 돌 베게를 하고 잠을 잤을까? 피폐하고 곤고하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심(12), 사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야곱아, 네가 지쳤나? 이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지내나? 그런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라. 거기의 천사들을 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야곱이 꿈 그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신다(51).

예수님이 자신 소개, 내가 그 사다리, 어떻게 아느냐, 나는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다.

복음서에 84회, 요한복음 12회, 사다리는 하늘과 땅 연결, 사람의 아들, 사람, 아들

200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그게 바로 나다.

“네가 치쳐 있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다리를 보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라. 그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힘을 내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도: 간사함이 없는 자들,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지금 가장 큰 문제: 1. 나라가 어렵다. 사회주의 공산화 일보 직전, 하나님의 섭리 악한 자들의 정체를  
드러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려내고 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한다. 천사들이 함께한다. 이번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하나님 세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귀 세력의 영적 싸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히1:14).

2. 암 등 병으로 투쟁하는 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

3. 재정, 직업, 취업, 무슨 문제든 빌4:6-7,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

야곱의 반응(16),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나도 요즘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한 일(18-19), 이름의 변화, 벨엘 하나님의 집,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내 직장,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

여기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서 있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빌리 그래함이 지은 <천사들; 하나님의 비밀 에이전트, 1986>의 이야기

남태평양에 호주 오른쪽에 뉴헤브리디스 열도, 제임스 쿡선장이 방문한 후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화하였다. 뉴헤브리디스 열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존 페이튼(John G. Paton,  
1824~1907) 선교사는 천사들의 보호함을 받은 경험을 얘기하였다. 적대적인 원주민들(식인종,  
나체족)은 한 밤중에 그의 선교 본부를 포위하고 불을 질러 저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존과 그의 부인은  
공포로 휩싸인 그 밤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공격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떠났고 이들은 놀랐다.

일 년 후 그 종족의 추장이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였다. 선교사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추장에게 무엇  
때문에 추장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집을 불살라 자신들을 죽이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 추장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밤에 당신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요?" 선교사는 대답하였다. "나와 내 아내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추장은 자기들이 창을 들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수백 명의 키가 큰 장정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제야 페이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을 깨달았다.

#### 결론

1.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왕국을 가져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거부, 재림의 땅에 저 땅에 왕국을 세우실 분, 천년왕국
2. 우리 예수님은 만나 구원받으려면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위선자 No!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사람의 아들
3.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도 동원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